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문헌 독해능력 평가 연구*

- A대학 1학년생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Reading Ability for the Literature Reading of Korean College Students: the Freshmen of A University

이종문(Jong Moon Lee)**

【초 록】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문헌 독해 실태를 분석, 문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A대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지문을 읽는 시간·독해패턴·이해력·기억력·독해습관 및 태도 등을 분석한 결과, 첫째 수능평균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학생의 58%가 양호하고 42%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조사대상 학생의 77%는 양호한 패턴을 가지 있으나 23%는 독서패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이해력과 기억력을 평가한 결과 각각 전체의 69%와 67%가 양호한 것으로, 31%와 33%가 보통 또는 미흡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평소 독서습관 및 태도를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학생은 평균 77%, 문제가 있는 학생은 평균 23%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첫째 대학생들의 독해평가를 위한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개발할 것을, 둘째 입학전형과정 또는 입학 후에 독해능력과 독서습관 및 태도를 평가할 것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평가결과 미진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가칭 기초학력교육원을 운영할 것을 제언하였다.

【키워드】

독해, 독해능력, 읽기시간, 독해 패턴, 이해력, 기억력, 독서습관 및 태도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in reading the literature and on the basis of the identified problems, to suggest the approaches to solve the problems. To this end, time required for reading

passages, reading patterns, understanding, memory and reading habits and attitudes were analyzed with the freshmen in A university.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results, 58% of subjects was good and 42% was not sufficient on the basis of the averages in Scholastic Aptitude Test. Second, 77% of subjects had the good patterns but 23% showed certain problems in reading patterns. Third, 69% and 67% of subjects illustrated good results in the analysis on understanding and memory, respectively. However, 31% and 33% were evaluated as being on the general level or requiring efforts in the analysis on understanding and memory, respectively. Next,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reading habits and attitudes, 77% had no problems but 23% required improvement. For solving the problems identified through the analysis, it is recommended to develop the scientific and standardized evaluation tools for evaluating the reading ability of college stud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reading ability, habit and attitude during the screening process for admission or after admission. Finally, it is required to operate the Fundamental Academic Ability Learning Center(tentative name) to improve the ability of students who show the insufficient results in evaluation.

【Keywords】

Reading, Reading Comprehension Ability, Time Required For Reading, Reading Pattern, Understanding, Memory, Reading Habit And Attitude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jmlee@ks.ac.kr)

논문접수일자 : 2010년 7월 31일 논문심사일자 : 2010년 9월 5일 게재확정일자 : 2010년 9월 25일

1. 서론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공부(工夫)라고 할 때, 이를 위해서는 공부에 요구되는 제반 자료를 읽어서 이해하는 것[독해(讀解)]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그 수준에 적합한 독해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독해력을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할 때, 이 같은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국제학생성취도평가)를 통해, 미국은 Lexile Score를 통해, 한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해 초·중등학생과 대학입학 자원에 대한 독해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또 한국의 경우 7차 교육과정부터는(교육과학기술부), “그 내용 체계를 독서이론과 독서의 실제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방식으로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다.”¹⁾

하지만 결과는 2006년 시행한 OECD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 평가 결과에 의하면(OECD PISA), 우리나라의 읽기 우등생 비율은 21.7%로 OECD 평균 8.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2008년도 학업성취도 결과에 따르면(교육과학기술부),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의 국어 기초학력이 미달인 학생이 아직 5.5%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사회는 11.8%가, 수학은 8.9%가, 과학은 12.5%가, 영어는 6.1%가 미달).

대학생의 경우도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연구진이 서울대에서 2009학년도 2학기에 대학국어 과목을 수강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논증력, 표현력, 이해력, 창의력 등 기본 글쓰기 능력을 평가한 결과(문화일보), 300점 만점에서 정원 외(14명) 모집학생은 200.58점을, 정시(117명) 모집은 197.31점을, 수시 지역균형(49명)은 190.61점을, 수시 특기자(78명)는 186.63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짐작컨대 여타의 대학도 유사하지 않을까 한다. 특히

1970년대부터 실행되었던 산하제한 정책의 결과와 이것 등에 기인하여 나타나기 시작한 출산 억제와 회피현상으로 대학입학 자원이 급속하게 줄어들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과 학과(전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럼에도 정원을 채워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독해로 대변되는 대학생들의 독해능력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언론이 지적하듯(오마이 뉴스) “글의 요점을 파악하는 독해능력은 지적 활동의 기원이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글을 읽으라고 하면 무서워한다. 글쓰기는 커녕 읽는 것마저 두려워하면 정말로 큰 문제다.”라는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독해능력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미국 독서수준지표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The Lexile Framework for Reading), 독해지수인 Lexile score가 노동자는 낮고 과학자는 높듯(→ 높은 순: 노동자 → 서비스 직업 → 건설 → 기술기능직 → 일반 서기직/사무원 → 노동자의 심장 → 비서직 → 세일즈 직업 → 관리 감독직 → 간호사 → 중역/관리직 → 교사 → 회계사) 대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직업일수록 독해지수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대학생들을 질적으로 우수한 직업세계로 이끌기 위해서도 문제를 파악하여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독해능력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독해 평가 요소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와 국내의 평가 시스템을 통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A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독해능력(읽기 속도, 이해력, 기억력, 독해패턴, 독해습관 등)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그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이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독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는 입학자원 감소와 더불어 나타나고 있고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대학생들의 독해력부족으로 고민하는 대학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구체적으로 독서의 이론에서는 ① 독서의 본질(독서의 기능과 특성, 독서의 과정, 독서의 방법, 독서의 가치), ② 독서의 원리[독서의 준비, 독해(단어/문장/문단의 독해, 글 전체의 독해, 비판적 독해, 감상적 독해), 독해 과정의 인식, 독서와 학습 방법], ③ 독서의 태도(독서 동기 및 태도, 독서 습관)등을, 독서의 실제에서는 ① 정보를 전달하는 글 읽기, ② 설득하는 글 읽기, ③ 친교의 글 읽기, ④ 정서 표현의 글 읽기, ⑤ 인문, 사회 분야의 글 읽기, ⑥ 과학, 예술 분야의 글 읽기, ⑦ 사전류 등의 이용, ⑧ 다매체 시대의 언어 자료 등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독해능력과 관련된 것은 독서의 원리 부분의 독해(단어/문장/문단의 독해, 글 전체의 독해, 비판적 독해, 감상적 독해), 독해 과정의 인식 등이다.

2. 이론적 고찰

2.1 독해력과 평가요소

독해력(reading comprehension ability)은 “인간의 기초적인 지적 기능의 하나로 활자화된 글감을 읽고, 그 내용이나 작자의 의도 등을 자기의 지식에 비추어 이해하는 능력(NATE 용어사전)”을 말한다. 따라서 학문의 이해가 독서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직시할 때, 그것이 어떤 분야든 간에 학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문의 수준에 적합한 독해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해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대체로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세부적인 독해능력을 평가하는 방식과 통합적인 독해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 평가를 위해서는 김길영(2003)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세부적인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과 함께, 통합적인 독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학자들의 견해와 국내외에서 운용되고 있는 독해력측정 시스템을 통해 독해력 평가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국외 학자들의 견해로 Thorndike(1917)는 독서 사고론의 관점에서 “단어의 용도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의미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두 가지로 구분되며, ① 의미 관계의 중요성 구별여부, 문장의 구조 이해여부, ② 단어나 문장의 관계 이해여부”가 주요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Carver(1973)는 언어 중심론의 관점에서 “독해를 위해서는 문장을 읽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① 단어 수준의 이해여부, ② 문장 수준의 이해여부, ③ 문단을 포함한 전체 글을 읽는 수준의 이해여부, ④ 사고의 수준 등을 평가 요소로 들었다. Kirby(Ontario MINISTRY of EDUCATION)는 독해 원인을 청취 이해력, 이해, 유창성, 전략 4가지로 구분하고, “① 청취 이해력 원인으로 어휘 사전 지식, ② 이해 원인으로 음성학적 인식 속도, 정자법 지식, 형태학적 인식, 발음중심어학교수법 지식, ③ 유창성 원인으로 인식속도를, ④ 전략 원인으로 목표방향과 목적”을 들었다. 이 밖에 Richard와 Park, Jeong-suk(2005)이 이해력 요소를 분류하여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질문지를 개발하여 모델을 제시하는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견해가 개진되고 있다.

국내 학자들의 견해로는 김길영(2003)은 “인지심리학에서는 독서의 과정을 풀이, 표면적 이해, 추리적 이해, 이해 조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① 해독 - 연결, 발음, ② 표면적 이해 - 어휘적 접근, 문법적 분석, ③ 추리적 이해 - 통합, 요약, 덧붙이기, ④ 이해 조정 - 목표설정, 전략적 선택, 목표 확인, 교정”이라고 하였다. 방인태(2005)는 “우리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그 이해의 순서가 어떠한지 간에 단어를 인식해야 하고,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글의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며, “이렇게 보면 독해력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단어를 인식하는 것과 문장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 대별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어휘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휘력을 구성하는 단어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측정해야 한다.”며 관련 요소로 “단어를 이해하는 정확도, 자동성, 인식속도를 들었다.” 그리고 “글의 이해와 관련된 요소로는 글의 구조상 차이, 선행지식의 유무와 그 정도, 음독과 묵독의 읽는 방법상의 차이, 독해 시에 사용하는 방책 등이 있다.”며, “선행지식 평가방안으로 개념 확인 질문과 예측하기, 방책사용 평가 방안으로 재독하기와 사고구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용어사전에서는 (NATE 용어사전), 독해력의 기초를 “문자를 읽을 수 있는 독자력, 사용된 문자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이해력, 문장의 구성을 알 수 있는 문법력”으로 보고, “글자를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는 해독력, 문자의 의미를 추출해내는 문자이해력, 문자의 의미를 보다 깊고 폭넓게 이해하는 추리이해력, 독서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해주는 이해조정력”과 “표현된 내용을 이미지로 구성하는 능력, 글감 전체의 구성과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 작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여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독해평가시스템을 통해 살펴보면, OECD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 평가 시스템에서는(OECD PISA), 산문(continuous text), 문서(non-continuous text), 형태에 근거한 문서(non-continuous text) 등을 글감으로 ① 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② 세부적으로 이해하여 특정정보를 추출하고 추론하는 능력, ③ 일반지식으로 부터 추론하여 그 내용과 형태를 논리적 비평적으로 고찰하는 능력을 평가 요소로 지식을 활용한 비판적 사고 능력과 그 활용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국가시스템인 미국의 대학입학 자격시험(SAT: Scholastic Aptitude Test)에서는, 논리력시험(SAT Reasoning

Tast)을 통해 어휘력, 속독력, 사고력을 기반 요소로 읽기 능력, 문장완성, 단락의 비평적 독해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학력평가시험에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미국 독서 수준지표에서는(The Lexile Framework for Reading), NICHD(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의 지원으로 개발된 렉사일 독서교육방법론(Lexile Framework for Reading)을 기반으로 MetaMetrics사가 개발한 Lexile Framework를 통해 독서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텍스트 난이도에 관한 독자와 텍스트 간의 상호작용에 주안점을 둔 Lexile Score라는 기술적 방법론에 의해 독서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참고로, Lexile Score는 15년에 걸쳐 4만 4,000권 이상의 책의 난이도를 연구하여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학생의 독서능력과 독서 난이도를 일치시킨 수치로, 100을 단위로 하여 0에서 2,000에 이르는 범위를 통해 평가하고 있다(0은 매우 읽기 쉬운 수준의 읽기재료를, 2,000은 매우 읽기 어려운 수준의 읽기재료를 의미한다).

한국의 독해평가 시스템을 보면, 국가적 시스템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언어영역(독해 관련 평가 영역)에서 2004학년도까지는 어휘력, 사실적 사고, 추리·상상적 사고(내용의 추론적 사고, 함축적 의미의 파악 등),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문장의 논리적 연결, 글의 논리적 구조 파악, 내용의 논리적 이해 등)를 평가요소로 독해력을 평가하고 있다(7차 교육과정부터는 추리·상상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추론적 사고” 영역으로 통합하였음). 또 다른 국가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국어능력인증시험에서는(TOKL 국어능력인증시험),²⁾ 언어기초영역(수행기반능력/어휘, 언어규범 능력/어법·어문규범), 언어기능영역(답화능력/듣기·말하기, 독해능력/읽기, 작문능력/쓰기), 사고력 영역(사실적 이해, 추론, 비판, 창의)으로 구성된 평가 요소를 통해 독해력을 포함한 국어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의 문항 수는 90문항으로 듣기 15(주관식 2문항), 어휘 15(주관식 2문항), 어법 5, 어문규정 5, 읽기 40(주관식 1문항), 쓰기 10(주관식 5문항)이다.

민간 평가 시스템인 독서능력진단평가 프로그램에서는(사단법인 한국독서능력개발원), 어휘력[이해력(의미, 구사), 표현력(형태, 의미)], 사실적 독해력, 추론적 독해력, 비판적 독해력을 평가 요소로 분야별 독서력(문학, 인문/예술,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을 포함하여 독서능력을 평

가하고 있다. Contents Portal에서는(CP Contents Portal), (주)RQ교육이 미국의 Lexile Framework Theory를 이론적 기초로 개발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인 RQ독서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능력을 진단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CBT(Computer Based Test)방식에 의해 20여 가지의 평가요소(어휘력, 문장의 구성 및 글의 내용 이해, 단어의 사전적 의미, 유의어와 반의어, 일반어와 특수어, 문맥속의 의미, 비유어, 지시어, 연결어, 중심문장 찾기, 제목 붙이기, 글의 흐름에 따라 문장 정렬하기, 글의 유형과 구성방식의 이해,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창의적 사고력 등)를 통해 독서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READ 검사(교보문고 READ)에서는, 독서력, 어휘력, 독서행동을 평가하여 도서와 피 독자에 대한 리드지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독해력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독서력은 100부터 1,850의 범위 내에서 주어지는 지수를 통해 기본적인 읽기 능력과 기초적인 사고력(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고 있다. 그리고 어휘력은 연령대별 인지어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3만개의 인지어휘로 검사문항을 구성,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능력·어휘 의미의 관계(반의어, 유의어) 파악능력, 알고 있는 어휘를 구사하는 능력 등을 측정하고 있다.

차원이동교육(주)의 스피드 북과 수능 언어포스에서는(스피드 북), 학습 메커니즘을 스터디 포스(study force: 공부의 핵심기술)에 두고, 그 핵심을 워킹 메모리, 독해력, 집중력으로 보고 있다. KBS 스피지 2.0 제작팀의 실험에 의하면(심민섭 2008), 워킹 메모리(Working Memory: 작업 기억)는 외부의 정보나 과거의 기억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떠올려 재조합하고, 행동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기능으로 KBS 스피지 2.0과 서울대학교병원이 공동프로젝트로 방송한 “공부 잘하는 법”에서 실험한 결과, 기억의 양과 질은 워킹 메모리가 좌우하는 것으로 판명된바 있다. 이 시스템의 견해는 글을 읽고 이해하려면 단어나 의미를 머릿속에 있는 기존의 지식과 관련지어 자기정보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일을 워킹 메모리가 담당하며, 그 폭이 넓으면 이해력과 기억력이 극히 우수한 반면 좁으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 공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독해력과 어떤 일에 몰입해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하는 능력인 집중력이 부족하면 공부를 잘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이러한 학습 메커니즘을 근거로 읽기의 속도, 읽기 패턴, 독해습관, 독해태도,

2) 국어능력인증시험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실시하는 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재단법인 한국언어문화연구원 주관하고 있다.

이해력, 기억력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12개 언어능력(이해력, 추론적 사고력, 논지 포착력 등)과 독해력 및 기본학습 능력[의미단위 읽기, 언어사고기능, 언어논증 기능, 언어워킹 메모리, 언어 카테고리라이징(Categorizing)]을 향상시키기 위한 언어포스 훈련과 포스 웨폰(Force Weapon) 훈련³⁾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유형의 민간 독해평가 시스템이 있으나 생략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독해력 평가 요소를 정리해 보면, 대체로 독해에 요구되는 요소는 국어능력과 혼재된 개념에서 어휘력, 문법력, 글을 의미단위로 읽는데 요구되는 능력, 글을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읽는 속도, 글을 읽는 패턴과 독해 습관 및 태도, 단어와 문장의 관계성을 이해하기 위한 능력(카테고라이징 능력), 글의 논지를 포착하는 능력, 글의 내용을 추론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이해 조정력(목표 방향과 목적 등), 언어적 워킹 메모리 능력, 기억력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2.2 선행연구

독해에 대한 선행 연구는 독해 요인 분석과 독해실태 두 가지 측면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먼저 국외 연구를 보면, Shahram Ghahraki and Farzad Sharifian(April 2005)은 92명의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를 통해 어떤 사실을 알아내는 능력과 의견 그리고 이것들이 독해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Lyengar 2007)는 미국의 문학적 독서 실태를 분석하였다. 결과 전체적으로 미국인들은 책을 읽는데 시간을 덜 소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책을 잘 읽지 않음으로서 독서능력이 악화되어 17세의 평균 읽기 점수는 1992년부터 점차 내려가기 시작했고, 30세 이상의 경우에는 읽기 점수를 개선하는데 실패하는 등 책을 이해하는 능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특히 10대들과 젊은 남성들의 약화가 심하다고 하였다. 읽기 숙달성의 경우에도 연령이 많아질수록 낮아져 있고, 독서가 교육수준과 관련이 있음에도 대학 졸업생들의 경우에도 읽기 숙달성이 20-23%나 감소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심각한 시민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영향을 가져오고 있다고 하였다.

Ana Paula Cabral, Josée Tavares(2002)는 포르투갈 주립 대학교의 과학, 기술 전공학생 1,000명에 의해 작성된 질문지를 통해 고등교육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이해력 전략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학생들의 수준이 중급정도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질문 내용은 “① 나는 학술적 활동에 관련되어서 읽는다. ② 나는 취미로 읽는다. ③ 나는 독서 중에 집중할 수 있다. ④ 나는 내가 읽는 글을 이해한다. ⑤ 나는 영어로 쓰인 글을 이해한다. ⑥ 나는 글의 맥락을 사용해 단어나 표현의 의미를 알아낸다. ⑦ 나는 사전과 백과사전을 사용한다. ⑧ 나는 새로운 단어를 완전히 이해한다. ⑨ 나는 표현이나 문장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다시 읽는다. ⑩ 나는 글의 키워드를 찾을 수 있다. ⑪ 나는 글의 주제를 찾아낼 수 있다. ⑫ 나는 글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할 수 있다. ⑬ 나는 선생님과 내가 읽은 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거나 의견을 교환한다. ⑭ 나는 글의 내용을 기억한다. ⑮ 나는 내가 읽은 책을 인용한다.”이다.

Singer, Marti, Etter-Lewis, Gwendolyn(1986)은 독서개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과 읽기 능력의 관계를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외향성/내향성, 감각/직관, 이성/감성, 판단/인지)를 통해 비교 조사하였다. 5개의 서술과 5개의 설명지문, 58개 이해력 문제를 통해 테스트 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격 유형에 상관없이 설명지문보다 서술지문을 더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읽기 과정의 조사와 설명에서 통합적 접근법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 밖에 Kelly Ronald R., Albertini John A.(2001)는 청각장애 학생 46명을 대상으로 이해력을 조사하는 등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국내의 경우, 대학생들의 독해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주로 영어독해에 집중되어 왔다. 이와 관련한 주요 연구를 보면, 박영애(1999)는 대학생들의 독해전략 사용에 대해 조사하고 독해전략의 사용이 독해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해전략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KAIST에 재학 중인 83명의 대학생들을 개상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대학생들은 초인지 전략, 어휘이해 전략, 지식이용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나경희(2008)는 대학생들의 영어독해전략 활용이 독해능력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배영자(2001)는 대학생들의 영어독해 과정을 분석하는 등 많은

3) 포스웨폰 훈련은 언어포스 극대화를 위한 5가지 핵심역량 훈련을 말하는 것으로, 웨폰1 - 의미단위 읽기, 웨폰2 - 언어 사고 기능 독해, 웨폰3 - 언어 논증기능, 웨폰4 - 언어 워킹메모리, 웨폰5 - 언어 카테고리라이징이 있다.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와는 국제적, 국가적 또는 민간차원에서 여러 방식에 의해 독해력이 평가되고 있음에도 한국어 자료 독해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은 듯하다. 관련 연구를 보면, 김길영(2003)은 독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서능력 평가에서 평가해야 할 목표와 교육 평가이론이 제공하는 평가자료 제작의 일반적인 절차에 기초하여 평가 자료의 종류, 평가문항의 종류, 평가문항 편집 지침, 독해능력 평가 자료의 제작절차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윤영선(1979)은 초, 중등학교와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해력 검사, 메우기 검사 등을 통해 독해력을 검사하여 그 수준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들의 이해력 검사 점수는 평균 68.2점(100점 만점)으로, 메우기 검사는 평균 85.4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나 “이해력 검사에서 75%의 문제를 맞힐 때 그 자료를 가르칠만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해력 정도가 낮다고 하였다. 이 밖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대학교가 국어과 과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고, 오정달(2008)은 청각장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장제시수단에 따른 독해능력을

분석하는 일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하지 않은가 한다.

3. 대학생들의 독해실태 분석

3.1 조사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독해실태를 파악을 위해 수행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해력 평가 요소에 대한 학자들과 독해력 평가 시스템들의 견해는 읽기 속도, 독서태도, 이해력, 기억력, 추리력, 비판력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는 C사가 제시한 지문(제시 글: 케네디家 사람들, 제시 지문 글자 수: 2,438자)과 이에 대한 독해력 테스트 문항을 기초로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조사는 읽기속도, 읽기 패턴, 독해 습관 및 태도, 이해력, 기억력 등을 요소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표는 <표 1>과 같다.

<표 1> 독해력 평가 조사표

구 분	조 사 내 용
읽기 속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지문을 읽는 시간 - 수능 평균 시간 내에 읽는지 여부 - 고등학생 평균 시간 내에 읽는지 여부
읽기 패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지문을 읽는 패턴 - 문장을 글자단위로 낱말이 읽는지 여부 - 문장을 단어단위로 또박 또박 읽는지 여부 - 문장을 2~3단어 단위로 읽는지 여부 - 문장을 좁은 의미단위로 읽는지 여부 - 문장을 넓은 의미단위로 읽는지 여부
이해력 및 기억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 지문에 대한 이해력 평가 - 제시 지문에 대한 이해력 평가 문항: 3문항 • 제시 지문에 대한 기억력 평가 - 제시된 지문에 대한 기억력 평가 문항: 3문항
독서습관 및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읽은 곳을 또 읽는지 여부 • 글을 읽다가 글줄을 놓쳐 엉뚱한 곳을 읽는지 여부 • 손으로 짚으며 읽거나 밑줄을 그으며 읽는지 여부 • 입으로 중얼중얼 소리를 내거나 음독을 하는지 여부 • 글자를 또박또박 읽지 않으며 웬지 불안한지 여부 • 핵심단어나 줄거리만 대충대충 읽는지 여부 • 긴 글은 읽을 엄두가 안나 끝까지 읽지 못하는지 여부 • 긴 글은 한번 읽으면 이해가 잘 안되는지 여부 • 글을 읽으면서 딴 생각을 할 때가 많은지 여부 • 책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졸음이 오는지 여부 • 지문에서 핵심 단어나 문장을 찾아내기 어려운지 여부 • 비슷한 어휘나 문장들을 자주 혼동하는지 여부 • 지문을 읽고도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가 많은지 여부 • 교과서나 참고서 읽기를 싫어하고 잘 안하는지 여부

〈표 2〉 조사결과 평가 기준

구분	평가기준
읽기속도	- 수능 언어영역 권장 소요시간 기준: 2분 2초(분당 약 1,200자) - 일반 고등학생 평균 소요시간 기준: 4분 4초(분당 약 600자)
독해패턴	- 문장을 글자 단위로 낱말이 읽을 경우: 최악의 독해패턴 - 문장을 단어 단위로 또박또박 읽을 경우: 극히 좋지 않은 독해패턴 - 문장을 2~3단어 단위로 읽을 경우: 공부에 부적절한 잘못된 독해패턴 - 좁은 의미단위로 읽을 경우: 양호한 독해패턴 - 넓은 의미단위로 읽을 경우: 공부용 최선 권장모델
이해력/기억력	- 3문항 중 1문항이 정답인 경우: 미흡 - 2문항이 정답인 경우: 보통 - 3문항이 정답인 경우: 양호
독해습관/태도	- “예”에 응답 비율이 높으면 “나쁜 것으로” 평가 - “아니오”에 응답한 비율이 높으면 “좋은 것으로” 평가

다음으로, 〈표 1〉의 조사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① 읽기 속도는 제시한 글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시간에 읽는지를 평가한다. 평가 기준은 C사가 제시하는 수능 언어영역의 권장 소요시간[2분 2초(분당 약 1,200자)]과 일반 고등학생 평균 소요시간[4분 4초(분당 약 600자)]이다. ② 지문을 읽는 패턴은 최악의 독해패턴, 극히 좋지 않은 독해패턴, 공부에 부적절한 잘못된 독해패턴, 양호한 독해패턴, 공부용 최선의 권장모델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C사는 이와 관련하여 문장을 글자 단위로 낱말이 읽을 경우 이는 글자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의 글 읽는 방식으로 아무리 읽어도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악의 독해패턴”으로, 문장을 단어 단위로 또박또박 읽을 경우 이는 초등 저학년 식 독서법으로 글 읽는 속도가 매우 느리고 긴 문장은 이해와 기억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극히 좋지 않은 독해패턴”으로, 문장을 2~3단어 단위로 읽을 경우 이는 집중하지 않으면 독해불가능하고 속도가 느리며 이해와 기억이 어렵다는 점에서 “공부에 부적절한 잘못된 독해패턴”으로, 좁은 의미단위로 읽을 경우 이는 성장기 독서량이 확보된 상태의 독해패턴으로 문장 이해와 기억에 문제없다는 점에서 “양호한 독해패턴”으로, 넓은 의미단위로 읽을 경우 이해와 기억효율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공부용 최선의 권장모델”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③ 이해력과 기억력에 대해서는 제시한 지문의 내용에 대하여 각각 3개의 문항을 출제, 정답 여부에 따라 3문항 중 1문항이 정답인 경우 “매우 미흡”, 2문항이 정답인 경우 “보통”, 3문항이 모두 정답인 경우 “양호”로 평가한다. ④ 독해습관과 태도에 대해서는 “예” “아니오”를 기준으로 “예”에 응답한 비율이 높으면 나쁜 것으로, “아니오”에 응답한 비율이 높으면 좋은 것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평가기준은 〈표 2〉

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앞의 조사표와 평가기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1단계로 조사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해평가 기초교육을 실시하였다. 핵심 교육 내용은 질문에 응답하는 방법과 제시된 지문을 읽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였다. 둘째 2단계로 제시된 지문을 읽고 소요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3단계로 독해패턴을 5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여 이 중 어떤 패턴으로 지문을 읽었는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4단계로 제시된 지문에 대한 이해력과 기억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각각 3문항씩 제시하여 이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5단계로 독해 습관 및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14개 문항을 제시하여 이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대학생의 독해실태를 파악하였다.

조사대상 및 데이터 수집은 조사대상은 A대학 1학년 학생 4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2008년에서 2010년까지 매학기 3월 1일부터 10일까지와 9월 1일부터 10일까지 각각 10일간 이루어졌다. 수집된 데이터는 총 421개였으며, 객관성을 갖기 위해 이중 제시된 지문을 이전에 읽은 경험이 있거나 동일 방식의 평가에 응한 경험이 있는 응답지, 그리고 전체 항목에 대하여 불성하게 응답한 응답지 15개를 제외한 406개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2 데이터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의 데이터 분석은 당초 응답자의 성별과 전공 등을 기초로 교차분석 등 다변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였으나, 조사대상 및 응답자의 대부분이 여학생이고, 전공분포가 광범위했을 뿐 아니라 전공에 따라서는 그

수가 너무 적어 성별과 전공에 따른 교차분석 등은 생략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시된 지문(지문: 케네디家 사람들, 글자 수: 2,438자)을 읽는데 소요된 시간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제시 지문을 읽는데 소요된 시간

시간	응답 수(%)
1분 5초 이하	77(19)
1분 6초 ~ 2분 5초	154(39)
2분 6초 ~ 3분 5초	70(17)
3분 6초 ~ 4분 5초	84(20)
4분 6초 이상	21(5)
계	406(100)

전체 응답자 406명을 대상으로 제시 지문을 읽는데 소요된 시간을 분석한 결과, 1분 6초 ~ 2분 5초 39%(154명), 1분 5초 이하 19%(77명), 3분 6초 ~ 4분 5초 20%(84명), 2분 6초 ~ 3분 5초 17%(70명), 4분 6초 이상 5%(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응답 학생의 58%(231명)가 수능 언어영역 권장 소요시간인 2분 2초(분당 약 1,200자) 이내에, 95%(385명)가 일반 고등학생 평균 소요시간인 4분 4초(분당 약 600자) 이내에 지문을 읽은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수능 권장 시간을 초과한 학생이 58%에 그치고 있는 점과 일반 고등학생 평균을 넘는 비율이 5%나 된다는 점이다.

독서 패턴을 패턴1에서 패턴5까지 다섯 패턴으로 구분하여 제시된 지문을 독서하는 패턴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지문을 독서하는 패턴

독서 패턴	응답 수(%)
패턴1: 문장을 글자 단위로 낱말이 읽는다.	0(0)
패턴2: 문장을 단어 단위로 또박또박 읽는다.	7(2)
패턴3: 문장을 2~3단어 단위로 읽는다.	85(21)
패턴4: 의미단위로 읽는다.	153(37)
패턴5: 넓은 의미단위로 읽는다.	161(40)
계	406(100)

전체 응답자 406명을 대상으로 독서 패턴을 분석한 결과, “패턴5: 넓은 의미단위로 읽는다.” 40%(161명), “패턴4: 의미단위로 읽는다.” 37%(153명), “패턴3: 문장을 2~3단어 단위로 읽는다.” 21%(85명), “패턴2: 문장을 단어 단위로 또박또박 읽는다.” 2%(7명) 순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전체 응답자의 77%(314)가 양호하거나 공부용 최선 권장모델 독해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독서에 적합한 독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극히 좋지 않거나 공부에 부적절한 잘못된 독해패턴인 “문장을 2~3단어 단위로 읽는다.”와 “문장을 단어 단위로 또박또박 읽는다.”는 응답이 23%(92)로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시된 지문에서 이해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된 3개 문항을 통해 이해력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지문에 대한 이해력

구분	정답자 수(%)
미흡(1개 문항이 정답인 경우)	35(9)
보통(2개 문항이 정답인 경우)	91(22)
양호(3개 문항이 정답인 경우)	280(69)
계	406(100)

전체 응답자 406명을 대상으로 지문에 대한 이해력을 조사한 결과, 3개 문항 모두가 정답인 학생이 69%(280명), 2개 문항이 정답인 학생이 22%(91명), 1개 문항이 정답인 학생이 9%(35명)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앞에서 제시한 미흡, 보통, 양호로 구분하여 평가해 보면, 상당수 학생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흡한 학생이 9%나 되는 것은 문제다.

제시된 지문에서 기억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된 3개 문항을 통해 기억력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지문에 대한 기억력(전공별)

구분	정답 문항 수(%)
미흡(1개 문항이 정답인 경우)	49(12)
보통(2개 문항이 정답인 경우)	84(21)
양호(3개 문항이 정답인 경우)	273(67)
계	406(100)

전체 응답자 406명을 대상으로 지문에 대한 기억력을 분석한 결과, 3개 문항이 정답인 학생이 67%(273명), 2개 문항이 정답인 학생이 21%(84명), 1개 문항이 정답인 학생이 12%(49명)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상당수 학생이 기억력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12%에 달하

〈표 7〉 독서습관 및 태도

문항	응답수(%)		
	예	아니오	계
글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읽은 곳을 또 읽는다.	140(34)	266(66)	406(100)
글을 읽다가 글줄을 놓쳐 엉뚱한 곳을 읽는다.	42(10)	364(90)	406(100)
손으로 짚으며 읽거나 밑줄을 그으며 읽는다.	126(31)	280(69)	406(100)
입으로 중얼중얼 소리를 내거나 음독을 한다.	42(10)	364(90)	406(100)
글자를 또박또박 읽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다.	56(14)	350(86)	406(100)
핵심단어나 줄거리만 대충대충 읽는다.	147(36)	259(64)	406(100)
긴 글은 입을 엄두가 안 나 끝까지 읽지 못한다.	35(9)	371(91)	406(100)
긴 글은 한번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된다.	133(33)	273(67)	406(100)
글을 읽으면서 딴 생각을 할 때가 많다.	161(40)	245(60)	406(100)
책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졸음이 온다.	42(10)	364(90)	406(100)
지문에서 핵심단어나 문장을 찾아내기 어렵다.	70(17)	336(83)	406(100)
비슷한 어휘나 문장들을 자주 혼동한다.	91(22)	315(78)	406(100)
지문을 읽고도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가 많다.	147(36)	259(64)	406(100)
교과서나 참고서 읽기를 싫어하고 잘 안 한다.	63(16)	343(84)	406(100)

는 학생들은 기억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생들의 평소 독서 습관 및 태도가 독해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표 7〉과 같다.

전체 응답자 406명을 대상으로 정상시의 독서 습관과 태도를 분석한 결과, 제시된 항목을 기준으로 독서습관과 태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학생이 평균 77.3%,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학생이 평균 22.7%로 나타났다. 문제가 있는 학생 중 가장 문제가 있는 독서습관 및 태도는 “글을 읽으면서 딴 생각을 할 때가 많다.”, “핵심단어나 줄거리만 대충대충 읽는다.”, “지문을 읽고도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가 많다.”, “글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읽은 곳을 또 읽는다.”, “긴 글은 한번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된다.” 순으로 나타나 이 부분 등에 대한 습관과 태도를 교정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독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읽기 시간은 고등학생 평균 시간을 적용하는 경우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나, 수능 평균을 적용하는 경우는 상당수 학생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독해 패턴은 대부분의 학생은 우수하나 23%에 달하는 학생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셋째 이해력과 기억력은 상당수 학생이 양호하나 31~33% 학생이 보통이거나 미흡한 것으로, 넷째 독서습관 및 태도는 대부분이 양호하나 23%에 달하는 학생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8〉 전체 분석 결과

구분		양호	보통 또는 미흡	계
지문 읽는 시간	수능평균 적용	58%	42%	100%
	고등학생 평균 적용	95%	5%	100%
독해패턴		77%	23%	100%
이해력		69%	31%	100%
기억력		67%	33%	100%
독서습관 및 태도		평균 77%	평균 23%	100%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독해실태를 분석하여 문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A대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C사가 제시하는 지문과 평가방법을 기초로 지문을 읽는 시간, 독해 패턴, 이해력, 기억력, 독해습관 및 태도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전체 응답자 406명을 대상으로 제시 지문을 읽는데 소요된 시간을 분석한 결과, 응답 학생의 58%(231명)가 수능 언어영역 권장 소요시간인 2분 2초(분당 약 1,200자) 이내에, 95%(385명)가 일반 고등학생 평균 소요시간인 4분 4초(분당 약 600자) 이내에 이를 초과한 학생이 5%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수능평균을 기준으로 58%가 양호하고 42%가 미흡한 것으로, 고등학생 평균을 기준으로 95%가 양호하고 5%가 미흡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독서 패턴을 패턴1에서 패턴5까지 다섯 패턴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314)가 양호하거나 공부용 최선 권장모델 독해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극히 좋지 않거나 공부에 부적절한 잘못된 독해패턴인 “문장을 2~3단어 단위로 읽는다.”와 “문장을 단어 단위로 또박또박 읽는다.”는 응답이 23%(92)로 나타났다. 따라서 77%는 양호한 패턴을 가지고 있으나 23%는 독서패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이해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된 3개 문항을 통해 1개 문항이 정답인 경우를 “미흡”, 2개 문항이 정답인 경우를 “보통”, 3개 문항이 정답인 경우를 양호로 평가한 결과, 전체의 69%가 양호한 것으로, 31%가 보통 또는 미흡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전체의 9%가 미흡으로 평가되어 일부 학생의 이해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기억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된 3개 문항을 통해 앞의 방법으로 기억력을 평가한 결과, 전체의 67%가 양호한 것으로 33%가 보통 또는 미흡으로 평가되었다. 미흡으로 평가된 비율은 전체의 12%로 파악되어 일부 학생이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섯째 학생들의 평소 독서 습관 및 태도가 독해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조사한 결과, 제시된 14개 항목에 대한 독서습관과 태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학생이 평균 77.3%,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학생이 평균 22.7%로 나타났다. 문제가 있는 학생 중 가장 문제가 있는 독서습관 및 태도는 “글을 읽으면서 판 생각을 할 때가 많다.”, “핵심단어나 줄거리만 대충대충 읽는다.”, “지문을 읽고도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가 많다.”, “글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읽은 곳을 또 읽는다.”, “긴 글은 한번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된다.” 순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A대학 대상 학생들의 문제를 파악해 보면, 윤영선(1979)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독서는 특정한 지식을 성취한 결과로 보여주는 과목이 아니고 모든 과목과 연계되는 지식을 취해야만 이루어지는 행동”임에도 첫째 조사대상 학생들의 42%가 수능평균 이하의 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다. 둘째 조사대상 학생의 23%가 적합하지 못한 독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과 셋째 조사대상 학생의 31%와 33%가 독서결과에 대한 이해력과 기억력이 보통이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 또한 문제다. 넷째 독서습관과 태도가 독서와 그 결과

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조사대상 학생들의 평균 23%가 독서 습관과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분석결과와 문제 파악을 기초로 다음을 제안한다. 그것이 대학이든 어떠한 교육과정 이든 교수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독서가 기초가 되어야 하고, 독서를 위해서는 독해력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대상 대학생들 중 일부는 독해에 요구되는 제반 요소에 대한 능력, 독서습관 및 태도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학생들의 독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자는 이를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평가도구를 기반으로 입학전형과정 또는 입학 후에 지원하는 또는 입학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독해능력과 독서습관 및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자는 입학과정과 입학 후에 독해능력을 평가하여 문제를 파악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평가하고, 기초교육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이를 실행하지 않는 대학들도 서울대 등과 같이 독해력을 포함하는 기초학력을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초학력교육원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 문헌】

김길영. 2003. 독해능력 평가 방안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5: 95-96.
 나경희. 2008.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독해전략 활용 및 활용에 따른 독해능력과 상관계수분석. 『현대영어영문학』, 52(2): 91-114.
 박영예. 1999. 대학생들의 독해전략에 관한 분석. 『응용언어학』, 15(2): 137-158.
 방인태. 2005. 국어과 독해 수업 평가 방안. 『한국초등국어교육』, 27: 55-64.
 배영자. 2001.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독해 과정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17: 579-608.
 오정달. 2008. 문장제시수단에 따른 청각장애대학생의 독해능력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4): 397-413.

- 윤영선. 1979. 誤讀解의 原因分析에 依한 讀書指導와 評價方法: 初·中·高·大學에 걸쳐서. 『교육연구』, 11: 1-35.
- KBS 스피디2.0 제작팀, 심민섭. 2008. 『스피디 2.0 공부 잘하는 법』. 서울: 주니어김영사.
- Cabral, Ana Paula and José Tavares. 2002. Practising College Reading Strategies. *The Reading Matrix*, 2(3): 1-16.
- Carver, Ronald. 1973. Reading as reasoning: Implications for measurement. In walter H. MacGinitie (ED.). *Assessment problems in reading*. Delaware: IRA. 44-56.
- Day, Richard R. and Jeong-suk, Park. 2005. Developing 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s.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17(1): 60-73.
- Kelly, Ronald R., John A. Albertini, and Nora B. Shannon. 2001. Deaf college students' reading comprehension and strategy use.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46(5): 385-400.
- Shahram Ghahraki and Farzad Sharifian. April,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all Reading Comprehension and Determination of Fact/Opinion in L2. *The Reading Matrix*, 5(1): 36-46.
- Singer, Marti and Gwendolyn Etter-Lewis. 1986. Personality Type and College Reading Comprehension. *College Reading and Learning Assistance Technical Report 86-06*. ERIC Reports Nov 86(U.S.; Georgia: Georgia State Univ., Atlanta). 1-32.
- Sunil Iyengar. 2007. *To Read or Not to Read: A Question of National Consequence(Research Report #47)*. Washington, DC.: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1-98.
- 교보문고 READ. [cited 2010.7.11].
 <<http://www.kyoboread.com/?orderClick=rAz>>.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cited 2010.6.5].
 <http://www.mest.go.kr/me_kor/index.jsp>.
- NATE 용어사전. [cited 2010.6.17].
 <<http://terms.nate.com/dicsearch/view.html?i=5025022>>.
- 문화일보 2010년 2월 18일자 기사. [cited 2010.6.10].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21801031127258003>>.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cited 2010.6.7].
 <http://www.mest.go.kr/me_kor/index.jsp>.
- 스피드 북 홈페이지. [cited 2010.7.23].
 <<http://www.speedbook.co.kr/>>.
- (사) 한국독서능력개발원 홈페이지. [cited 2010.7.10].
 <http://readingcenter.cafe24.com/zbx/inz_01>.
- CP Contents Portal Home Page. [cited 2010.7.11].
 <<http://www.contentsportal.co.kr/>>.
-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Home Page. Kirby, John R. What have we learned about reading comprehension?. [cited 2010.7.2].
 <<http://www.edu.gov.on.ca/eng/research/kirby.pdf>>.
- OECD PISA. [cited 2010.6.7].
 <http://www.pisa.oecd.org/pages/0,2987,en_32252351_32235731_1_1_1_1_1_1,00.html>.
- 'Ohmy News'. 2008. 독해능력은 지적 활동의 기원. 2월 4일. [cited 2010.6.1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28123>.
- The Lexile Framework for Reading. [cited 2010.6.15].
 <<http://www.lexile.com/>>.
- Thorndike, Edward L. 1917. Reading as reasoning: a study of mistakes in paragraph reading. In *Reading Research Quarterly*. 323-332.
 <<http://www.archive.org/texts/flipbook/flippy.php?id=readingasreasoni00thor>>.
- TOKL 국어능력인증시험. [cited 2010.6.15].
 <<http://www.tokl.or.kr/>>.